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그림책 목록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1	가족 이야기	고함쟁이 엄마	유타 바우어	아이 입장에서 보면 고함 소리와 같은 부모의 강압적 태도나 체벌은 이유야 어쨌든 아이 몸을 산산이 부수는 두려움 그 자체일 것이다. 아이를 어리지만 인권의 주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아가야 미안해”이다.
2	가족 이야기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베라 브로스골	복작이는 집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 숲으로, 동굴로, 달로 떠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구에게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푹 던져두고 가만히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
3	가족 이야기	너 왜 울어?	바실리스 알렉사키스	어쩔 내가 하는 목소리, 톤, 어투 이렇게나 잘 구현해냈을까. 그리고 책표지의 손톱은 나의 지시형 말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의 말과 아이의 표정하면서 책속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는지를 볼 수 있다.
4	가족 이야기	넉 점 반	이영경	지금 몇 시인지 알아보고 오라는 엄마의 심부름을 놀이에 정신이 팔려 여자아이는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해가 골짜기 저서야 집에 돌아가 “시방 넉 점 반이래” 라고 전하는 모습이 능청스러우면서 정겨우며,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5	가족 이야기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박연철	엄마는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며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고 겁을 준다. 어느 날 엄마가 도리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 갔다 오면서 망태 할아버지보다 엄마를 잃게 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가족 이야기	볼품없는 상	김소연	산골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작은 상은 하루 세 번, 따뜻한 밥상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귀하고 귀한 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밥상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왔듯이 모든 사람이 귀하고 귀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7	가족 이야기	빼떼기	권정생	빼떼기가 몸이 아파 엄마암탉도 빼떼기를 못알아보게 되었지만, 무명옷을 지어입힐 만큼 사랑해주던 손진이네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힘차게 꺾꽂이해 커 나간 모습은 감히 감동적이다. 작가 권정생의 울곧은 모습이 떠오르는 책이다.
8	가족 이야기	아빠! 머리 묶어 주세요	유진희	엄마가 자리를 비우고서야 아빠는 은수의 머리를 처음으로 묶어준다. 아빠는 밤중에도,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머리 묶는 연습을 한다. 엄마가 은수의 동생을 낳아 집으로 돌아왔다. 은수네는 적어도 엄마의 독박육아가 아닐 것 같아 다행이다. 머리 묶어주는 아빠가 있으니까.
9	가족 이야기	아빠는 곰돌이야	김소예	쉬는 날도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던 아빠는 곰인형이 된다. 곰인형이 된 아빠는, 아빠로 변한 곰인형과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애태우는 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귀찮아하는 아빠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이다.
10	가족 이야기	알사탕	백희나	작가에게는 알사탕이 참으로 많은 추억이 함께 했나보다. 글과 그림을 맛깔스럽게 잘 표현해내는 작가는 나를 이번에 울리고 만다. 아픈 이야기도 혹은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도 이렇게 잘 녹여내다니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11	가족 이야기	엄마 마중	이태준	아이는 바람이 불어도 꿈쩍 안 하고, 전차가 와도 차장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코만 새빨개져서 그냥 가만히 엄마를 기다린다. 아이의 빨개진 코만큼 아이의 기다림이 절절하고 안타깝다. 과연 아이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12	가족 이야기	엄마의 초상화	유지연	이 책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왼쪽에는 엄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미영씨가 있다. 미영씨와 엄마의 모습은 참 많이도 다르다. 우리 모두는 엄마 모습 뒤에 있었던 미영씨의 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엄마가 된 엄마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13	가족 이야기	코피 대작전	정미진	나도 코피를 흘리고 싶은 때가 있었다. 나를 교육 안아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때였다. 그것이 엄마든 공지영작가의 <봉순이언니>와 같은 존재든 코피 대작전을 펼치지 않더라도 나를 교육 안아 줄 존재! 사람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14	가족 이야기	한밤중 개미 요정	신선미	어릴적 허약했던 작가는 몽롱하게 누워있을 때 순수한 아이들한테만 보인다는 요정을 보곤 했다. 그림이 곱고 곱다. 신선미같은 작가들이 많은 그림책을 펴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가족 이야기	할머니 엄마	이지은	‘할맘’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육아를 전담하는 할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워킹맘을 대신 해 손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고단한 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의 애뜻함을 느낄 수 있다. 할머니와 엄마, 아이가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듯하다.
16	글자없는 그림책	공룡을 지워라	빌 통슨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한대다. 무엇을 그리든 그 이상을 표현해 내는 듯하다. 심심한 오후 비 까지 내리고 있다. 그들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초조와 긴장 속에서 작가의 디테일함까지 더해져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17	글자없는 그림책	머나먼 여행	에렌 베커	각자의 일로 바쁜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심심한 소녀가 있다. 방에서 빨간 분필을 발견한 소녀는 벽에 빨간 문을 그린다. 그 문을 열고 소녀는 머나먼 여행을 시작한다. 보라색 분필을 든 소년도 찾아보길 바란다.
18	글자없는 그림책	아랫집 윗집 사이에	최명숙	화가 잔뜩 난 아래층 할아버지. 쿵쿵대고 혼나고를 반복하는 위층 아이들.그림만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사람이 있다. 각자 다른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다. 알면 사랑할 수 있다.
19	글자없는 그림책	이봐요, 까망 씨!	데이비드 위즈너	까망씨는 고양이 장난감이 즐비한 집에서 사는 사랑 받는 고양이이다. 가격표가 붙은 장난감에 시큰둥했던 까망씨가 장난감 사이에 있는 낯선 물체를 발견하고 신나게 갖고 논다. 이 물체는 바로 외계인의 지구탐사 우주선!
20	글자없는 그림책	흰곰	이미정	두 줄의 쇠기둥에 갇힌 흰곰의 슬픈 눈빛! 그 속에 담긴 흰곰의 이야기. 동물원에 사는 흰곰은 우리를 나온다. 우리 밖은 사람들의 세상이지 흰곰이 살 곳이 아니다. 흰곰은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
21	동물은 친구야	고라니 텃밭	김병하	숲 속에 작업실을 마련한 화가 김씨 아저씨는 그림그리기보다 텃밭 가꾸기에 폭 빠져 있다. 풍성해지는 텃밭을 보며 마냥 행복했던 김씨 앞에 고라니라는 불편한 손님인 나타난다. 김씨와 고라니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
22	동물은 친구야	어이, 친구!	애덤 렉스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행복하다. 동물들도 과연 동물원에서 행복할까? 동물들은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동물원에 놀러 온 소녀에게 동물들은 엉뚱하지만 기발한 물건들을 하나씩 부탁한다. 이 물건들로 동물들은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지.....반전의 매력 속으로 고고~~
23	동물은 친구야	염소 시즈카	다시마 세이조	염소를 키우며 한 아이가, 한 집안이 성장하는 이야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염소의 탄생과 삶을 느끼고 그 와중에서도 한 가족이 성장함을 느낀다. 마음이 따듯지는 책이다. 일본을 꺼려하던 내게 편견을 깨준 책이다.
24	동물은 친구야	점프 점프	정인석	또 다른 세상을 알아버렸다. 삶은 그것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 핑크는 진짜 바다를 보기 위해 높이 더 높이 점프한다. 핑크를 바다 어디쯤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핑크가 진짜 바다에서 '점프 점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고래를 놓아 주어야 한다.
25	동물은 친구야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권정민	인간이 살기 위해 멧돼지들의 삶을 파괴했더니 이제 멧돼지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들이 되었다. 언제까지 모든 산과 들을 파헤치고 아파트를 만들 것인가. 어쩌면 지혜로운 멧돼지가 인간을 몰아내고 아파트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26	동물은 친구야	최고 멋진 날	고정순	할아버지의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선물로 준 토끼는 할아버지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된다. 할아버지와 "토갱이"이는 행복한 9년을 보내고 이별을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 안에는 언제나 토갱이가 있다.
27	동물은 친구야	과양!	조원희	도로에 아이가 쓰러져 있으면 구급차와 경찰이 달려온다. 도로에 아기 고양이가 쓰러져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다. 똑같은 어린 생명 앞에서 사람들 반응이 다르다. 엄마 고양이가 조용히 아기고양이를 물고 간다. 슬프고 아프다.
29	인생 맛보기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	100만 년 동안 사랑을 알지 못하던 한 고양이가 진짜 사랑을 알아가는 이야기이다. 수많은 고양이 중에서 단 한 마리의 고양이만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온 우주를 다해 사랑하게 만든다. 사랑은 결코 명령어가 아님을 알려준다.
28	인생 맛보기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엄마의 죽음, 아이는 슬프다고 말하지 못한다. 엄마 냄새, 엄마 목소리가 사라질까 두려워 자기 안에 가둔다. 외할머니가 오고서야 눈물을 꿀도 없이 쏟아낸다. 엄마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아이는 일상을 회복한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30	인생 맛보기	씩씩해요	전미화	짙한 노란색 표지에 아이가 웃으며 "씩씩해요"라고 말하는 말풍선이 그려져 있다. 표지만 보면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을 다룬 책이라고는 짐작도 못한다. 그리고 '씩씩하다' 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묶여 큰 울림을 준다.
31	인생 맛보기	아빠나무	김미영	그리운 아버지에게 바쳐진 '아빠나무'는 슬프지만은 않다. 반짝반짝한 추억, 예쁜 추억, 가슴 저미는 추억. 그러나 아빠의 부재에도 나무를 껴안고 힘을 내고 씩씩하게 자라겠다는 다짐을 하늘로 보내는 아이의 얼굴은 평온하다.
32	인생 맛보기	어느 날,	이적	이별과 죽음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담고 있다. 할아버지의 모습 같은 물건들과 장소는 예고나 준비할 시간 없이 찾아 온 이별을 더 먹먹하게 만든다. 이 책은 냉혹한 이별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33	인생 맛보기	해는 희고 불은 붉단다	길상호	나의 할머니도 이름짓기의 귀재였다. 허투루 붙인 것 같지만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담아 나의 유년을 풍성하게 했다. 할머니의 부엌, 마당, 남새밭은 그림이 되어 나에게 남아있다. 그림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림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움은 불이 되어 붉게 탄다.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34	자존감, 자기애	25미터	송예은	서연이와 같은 반이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연습하고 물을 잔뜩 먹어도 포기하지 않는 범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까. 내가 범이라면 포기하고 오늘 하루쯤 했을텐데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범이야 존경한다.
35	자존감, 자기애	나의 작은 인형 상자	정유미	두꺼운 그림책이지만 글은 아주 짧다. 유진의 마음 속, 또는 유진의 인형 상자 안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피고 나면 자신의 마음, 또는 내면이 겹쳐 보이기도 한다.
36	자존감, 자기애	동동이와 원더마우스	조승혜	“입만 살았네~” 행동보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입이 살아 움직인다며? 너무나도 기발한 상상력이다. 동동이의 입인 원더마우스는 동동이 가 말하는 동시에 튀어나가 먼저 움직인다. 앗! 그런데 내 입은 어디?
37	자존감, 자기애	발레리나 벨린다	에이미 영	벨린다는 춤추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렇게 큰 발로는 절대로 발레리나가 될 수 없어요,” 발 크기와 춤 실력이 무슨 상관일까?
38	자존감, 자기애	슈퍼 거북	유설화	슈퍼 거북이라는 책 제목과 머리에 빠르게 살자 라는 슬로건을 걸고 굳은 다짐을 다 부진 입매로 보여주는 책표지가 나를 상상의 길로 이끈다. 책 속의 거북이처럼 작가의 근면함이 드러나 보이는 삽화 역시 매력있다.
39	자존감, 자기애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누구나 작은 얼룩이 생길 수 있다. 그 뜻하지 않은 실수를 탓하고 거기서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실수를 놀라운 상상력과 짜릿한 반전으로 보여주면서 실수가 새로운 시작이며 희망임을 알려준다.
40	자존감, 자기애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커다란 물고기의 모자를 훔쳐 달아나는 깜찍한 작은 물고기의 이야기이다. 작은 물고기는 완전범죄를 장담했지만 커다란 물고기는 뻔히 알고 모자를 되찾아간다. 잘못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했던 작은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걸까?
41	자존감, 자기애	조랑말과 나	홍그림	여행을 떠난 아이 앞에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 조랑말을 망가뜨린다. 놀라고 당황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랑말을 껴매고 붙여 함께 여행을 계속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조랑말은 무엇인가?
42	재미있는 그림책	간질간질	서현	머털도사, 손오공 하면 공통으로 생각나는게 있으세요? 왜 있잖아요~ 나의 분신들이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진정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이는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는 그림책. 하나 더 '나'를 찾는 재미가 솔솔하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렇담! 오~~예!!
43	재미있는 그림책	개구리의 낮잠	미야니시 다쓰야	단장에 빠져있는 개구리를 사마귀, 도마뱀, 쥐, 뱀, 독수리 등이 잡아먹으려 한다. 위기의 순간 마다 가슴이 짹짹해지는 스타일이 넘치지만, 정작 개구리는 태연하다.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먹이사슬의 구조를 재미있게 보여준다.
44	재미있는 그림책	고구마구마	사이다	고구마와 작가 사이다의 환상궁합. 가름하고 맛있게 생긴 고구마만 맛보았다면 이제 각양각색의 모양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한 고구마를 만나보시기를 권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사이다를 마신듯 가슴이 뽕 뚫리는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45	재미있는 그림책	곰돌이 팬티	투페라 투페라	덩치 큰 흰 곰이 빨간 팬티를 입고 있는 표지에 주목하기! 책의 띠지로 만들어진 빨간 종이 팬티를 내려야만 이 책을 펼칠 수 있는 민망한(야한) 상황을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떻게 즐길까?
46	재미있는 그림책	까까똥고	스테파니 블레이크	아기 토끼는 오직 한 가지 말만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까까똥고” 만 외친다. 어른들은 속이 터지겠지만 “까까똥고”를 외치는 아이는 신이 난다. 아이와 함께 읽는다면 “까까똥고” 대사는 아이에게 양보하라!
47	재미있는 그림책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이 책을 읽어줄 때 반복적인 어휘구사를 하면서도 리듬이 있어서 더없이 아이들이 즐겁게 듣는다. 인간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도깨비를 잘 살려준 작가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선량하고 즐거운 책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좋다.
48	재미있는 그림책	꼭꼭 숨바꼭질	송현주	코, 눈, 입만 까맣고 온 몸이 하얀 강아지를 하얀 종이 위의 그림에서 찾아내는 숨바꼭질 그림책이다. 숨바꼭질을 이런 그림책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접 숨바꼭질하는 것이 더 좋다.
49	재미있는 그림책	똑똑해지는 약	마크 서머셋	혹시 똑똑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두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고 받는 대화체만으로도 재미를 더해 주고 나도 모르게 똑 빠지게 될 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똑똑해져 있을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50	재미있는 그림책	마음을 지켜라! 봉가맨	윤지희	경제관념을 함께 이야기 나눌수도 있고,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대할 때 온통 아이를 사로잡는 심리를 탁월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책이다.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51	재미있는 그림책	먹다 먹힌 호랑이	강벼리	호랑이 수염과 발톱과 이빨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이야기에 섬나라 늙은 왕은 가장 똑똑한 신하를 호랑이가 산다는 이웃에 보낸다. 앞부분에서, 옛이야기 토끼전을 살짝 패러디한 듯한 이 책은 옥심의 뒤끝을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해학과 풍자가 넘친다. 그림 또한 글 못지않게 재미있다.
52	재미있는 그림책	벗지 말걸 그랬어	요시타케 신스케	티셔츠를 벗다 목에 걸려 버린 아이의 기발한 상상이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티셔츠는 벗겨지지 않고, 이대로 평생 못 벗으면 어떻게 할까 천진스럽게 고민하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53	재미있는 그림책	빵 공장이 들썩들썩	구도 노리코	말썰쟁이 야옹이들, 이번에는 빵공장에서 몰래 빵을 만든다. 제법 흥내를 낸다. 퍽퍽, 팔팔, 툭툭, 팍팍. 그런데 맘소사! 베이킹파우더를 몽땅 넣어버린다. 심지어 탈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야옹이들, 탐이 쏘옥 빠지도록 뒷감당을 한다.
54	재미있는 그림책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산딸기 크림봉봉을 읽어주면 적지않은 글밥에도 아이들은 노래처럼 운율처럼 따라 읽는다. 인물은 바뀌면서 요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노예제도와 양성평등과 인종차별까지 무거운 주제를 잘 녹여내고 있다.
55	재미있는 그림책	수박 수영장	안녕달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동네 사람들이 큰 수박 안에서 수영하거나 다양하게 놀면서 시원함을 즐긴다. 여름의 대명사인 한 통의 수박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나눔과 가족 간의 사랑을 전해주어 따뜻하다.
56	재미있는 그림책	아씨방 일곱 동무	이영경	아씨가 잠들었다. 때를 놓칠세라 아씨방의 바느질 일곱 동무는 서로 잘난 척한다. 잠든 아씨의 표정이 아주 사실적이라서 재미있다면, 일곱 동무의 의인화는 풍부한 상상력이 주는 유쾌함이다. 특히 토라진 일곱 동무의 모습은 장면 중 가장 압권이다.
57	재미있는 그림책	왜냐면...	안녕달	“비는 왜 와요?”로 시작되는 아이의 질문에 허를 찌르는 엄마의 답변은 현실이 투영된 상상의 세계이다. 옳은 것을 멋지게 표현한 것을 ‘시’라고 했던가? 엄마의 대답은 ‘시’가 되고 동화가 되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한다. 나른한 오후의 낮잠 위로 무지개가 뜬다.
58	재미있는 그림책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담이와	채인선	잡고 잡히고, 친구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가 이해와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쟁과 편견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먼저 다가서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웃음과 대리만족을 주어 즐겁다.
59	전쟁과 평화	무명천 할머니	정란희	무명천 할머니는 경찰이 무장대로 오인하여 쏜 총에 턱을 맞아 흉측해진 얼굴로 평생을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다.
60	전쟁과 평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자연은 지뢰를 뚫고 철조망을 넘고 먼 길을 돌아서라도 전쟁의 상흔을 회복하는데 사람의 시간만은 그대로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었을 때 평화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땅에도 평화의 봄날이 곧 오기를...
61	전쟁과 평화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유타 바우어	위기에 처했던 토끼는 숲 속 작은 집에서 노루와 여우를 만나고 사냥꾼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 손을 잡는다. 식물, 동물, 사람이 모두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폭력이 없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게 만든다.
62	전쟁과 평화	안 돼!	데이비드 맥페일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탱크가 불구덩이를 만들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려는 아이를 때리려고 한다. 아이가 단호하게 '안 돼!'를 외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 간다. '안 돼!'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됨을 알려준다.
63	전쟁과 평화	오늘은 5월 18일	서진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총놀이를 좋아하던 아이의 눈에 비친 그날은 진짜 총의 위력 앞에서 가짜 총 마저도 버려야 하는 물건임을 알게 한다.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애타게 기다린다. 우리 모두는 역사에 빛진 자들이다. 부채의식을 갖고 기억해야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64	전쟁과 평화	장벽	툼 클로호지 콜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했던 소년과 그 가족의 이야기다. 독일에서 1989년 11월에 무너진 장벽은 2018년 한반도를 나누고 있는 장벽과 다르지 않다.
65	전쟁과 평화	적	다비드 칼리	하루 종일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병사들이 기습공격을 한 참호에서 적의 가족사진과 전투 지침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기처럼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한 인간임을 보여주며 서로 힘을 겨루는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66	전쟁과 평화	제노비아	모르텐 뒤르	시리아 내전은 8년째이고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되었다. 2015년 시리아의 3살짜리 아이ylan 쿠르디의 시신 앞에서 전 세계는 경악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전쟁과 우리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는 그림책이다.
67	전쟁과 평화	제무시	임경섭	김해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을 다룬 그림책이다. 미국의 군용 화물트럭인 제무시는 읍사무소 창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짐칸에 싣고 숲속에 간다. 그리고 빈 차로 내려온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68	친구 우정	너도 갖고 싶니?	앤서니 브라운	많은 것을 가진,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제레미와 어떤 것도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샘의 이야기다. 너무 빨리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으며 진정 소중한 가치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69	친구 우정	안녕, 외톨이	신민재	아이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귀신이 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진짜 혼내줬을 테니까. 아이는 비오는 날 버드나무 근처에서 자기처럼 작고 마르고 혼자인 귀신을 만나게 되는데.....
70	친구 우정	얼음 땡!	강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얼음'이 될 때가 있다. 온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얼음이 되어 소외되었을 때 나에게 '땡'을 외쳐준 친구! 나도 누군가에게 '땡'을 외쳐주어야겠다. 얼음이 된 그에게 온기가 돌도록...
71	친구 우정	친구랑 싸웠어!	시바타 아이코	분명 고타가 사과를 했는데도 다이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 다이는 속이 좁은 아이일까?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가 사과했다고 금세 괜찮아진다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다. 다이의 마음을 통해 어른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된다.
72	학교 생활	돼지꿈	김성미	미래의 행복을 위해 아이도 어른도 현재를 희생하며 산다. 어떤 이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경쟁이라고도 한다. 책을 보고 있노라면 가던 길을 좀 벗어나고 싶어진다. 내 속의 돼지꿈을 '지금' 이를 수 있도록!
73	학교 생활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소원을 말해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자 되기, 공부 잘하기 등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사소한 소원만 들어준다니 당황스럽다. 사소한 것이 도대체 뭘까? 훈이의 소원을 계속 거절하는 두꺼비의 능청스러움이 재미를 더 한다. 사소한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
74	학교 생활	착한 아이 사탕이	강밀아	요즘은 착하기만 한 아이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어쩌면 자기 표현과 자기방어를 잘 하는 아이들에게 사탕이는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사탕이를 만나면 유독 마음이 쓰인다.
75	학교 생활	책 읽는 날	이영서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을 마치 우리가 눈에 보듯 실감나게 글 속에 옮겨놓는 작가의 책은 마치 영화를 보듯 감동스럽다. 또한 책을 읽는 어른아이 할것없이 몽담이를 보며 삶에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것이 분명하다.
76	학교 생활	혼나지 않게 해 주세요	구스노키 시게노리	선생님 말씀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싶지만 나는 맨날 혼나라는 말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다. 아이의 간절한 진심은 어른들에게 통했다. 구스노키선생님이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겪은 일을 책으로 지어낸 이 글은 심금을 울린다.
77	함께 생각해보기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작가의 빛나는 상상력이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문은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책을 보면서 거짓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78	함께 생각해보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하산은 석탄을 실어 올리고 키잠부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르네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부모를 기다린다. 우리와 너무도 다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가슴 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다.
79	함께 생각해보기	꽃할머니	권운덕	위안부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실은 그림책이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아픔이 전해져 온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전쟁이 한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고 그녀들의 삶은 아직까지 고통이다.
80	함께 생각해보기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 바르디에	토토를 놔두고 눈을 감아야 했을 토토의 엄마가, 삶의 짐이 너무 버거웠을 토토의 형이 애잔한다. 행복한 사람을 보여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앙투안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가슴아프게 반성한다는 최해훈 샘의 말을 적는다.
81	함께 생각해보기	노란 리본	허가윤	얼마 전, 세월호가 바로 섰다. 살아남은 자도, 떠난 자도, 지켜보기만 한 자도 모두 아프기만 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 기억해야한다.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억해야한다. Remeber 20140416!
82	함께 생각해보기	마음 조심	윤지	마음 조심의 주인공은 일명 소라게다. 소심하게 세상을 걸어나가는 그러나 내 몫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습은 웃픈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 내 주위의 소라게가 있다면 더욱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83	함께 생각해보기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산을 깎고 케이블카를 놓고 SNS는 발달하고...개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거인으로 상징된 자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이다. 아 니온 듯 다녀가는 지혜가,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84	함께 생각해보기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옥재	환경이야기를 아이들과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때 단연 '맑은 하늘 이제 그만'을 손꼽고 싶다. 맑은 수채화풍의 그림도 책 속에 빠져들게 한다. 내가 쓰는 이 물이 그 누구의 소중한 목숨같은 물임을 잊지 말자.

구분	주제	서명	저자	추천글
85	함께 생각해보기	먼 데서 온 손님	안트예 담	쥐구멍에 사는 쥐들은 집이 없어 오갈 데 없는 리산더를 맞이한다. 늪에서 온 리산더는 욕조에 물을 채우고 흙을 붓고 씨앗을 뿌렸다. 생쥐들은 리산더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불안했다. 생쥐들과 리산더는 같이 살 수 있을까?
86	함께 생각해보기	명희의 그림책	배봉기	아빠, 엄마의 방치 속에 어두컴컴한 빈 집에 혼자 있는 명희는 그림책만 본다. 그림책 속 흰 곰이 명희와 놀아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아빠, 엄마이자 친구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파하는 명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87	함께 생각해보기	무지개 욕심 괴물	김규정	'그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도 아빠가 사다 주신 레드 맨 헬멧과 친구 룰이 곁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라울. 어느 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핵과 방사능의 위험을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88	함께 생각해보기	선아	문인혜	가슴이 아프다. 노란 안전 철모들을 쓰고 있는 거리의 청년들은 견뎌내고 있다. 이제 다른 세대가 함께 해야 한다. 내 젊은 시절의 방향은 분명 현재 내 삶에 큰 에너지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의 방향은 훗날 그들의 에너지가 될 힘이 될 수 있을까.
89	함께 생각해보기	아기돼지 세 자매	프레데릭 스테르	가장 좋은 신랑감을 찾아 떠난 아기돼지 세 자매. 첫째와 둘째는 겉모습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 줄 것 같은 신랑감을 고르고 셋째는 신랑감을 찾을 생각을 않고 자신의 힘으로 늑대를 사로잡는다. 여자는 '이래야 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책이다.
90	함께 생각해보기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눈이 안 보이는 친구, 귀가 안 들리는 친구. 지진으로 부모님을 잃은 친구의 느낌을 알고 싶어 하는 히로의 이야기이다. 히로는 호기심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다. 하지만 히로의 진짜 모습은 책을 다 읽어야 알 수 있다.
91	함께 생각해보기	옛날에는 돼지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이민희	옛날에 돼지는 도시를 세우고 문화를 즐기며 바쁘게 일을 하는 똑똑한 돼지들이었다. 돼지들은 일이 많아지자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고 그들의 자리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점점 현실화되는 인공지능화 시대에 인류의 자리는 어디일까? 짧은 그림책 한 권의 메시지가 목직하다.
92	함께 생각해보기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오렌 긴즈버그	개발은 누가 원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원주민은 모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일까? 원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외지인들이 들어간 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주민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그림책이다.
93	함께 생각해보기	위를 봐요!	정진호	사고로 베란다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던 수지를 한 아이가 올려 본다. 올려 보면 그 아이가 눕자 앞만 보고 걷던 사람들이 한, 둘 따라서 눕게 된다. 한 사람의 변화된 행동이 시선을 바꾸면서 소통의 따뜻한 생기가 되살아난다.
94	함께 생각해보기	자유 의 길	줄리어스 레스터	자유로 가는 길은 두렵고, 두렵고, 두려운 길이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길 밖에 없다. 누군가 저항했고 함께 했고 도왔고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다. 작가의 말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또 다른 자유 의 길을 만들어보자.
95	함께 생각해보기	진짜 투명인간	레미 쿠르종	우리는 누군가에겐 투명인간이다. 시각장애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세상을 때로는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아름다운 색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느끼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 여러분의 가장 노란색은 어떤 느낌인가요?
96	함께 생각해보기	찬다 삼촌	윤재인	히말라야 산이 있는 나라에서 온 찬다 삼촌은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어줘도 못 읽는다. 하지만 엄마 없는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양말을 꿰매며 같이 텔레비전을 본다. 찬다 삼촌은 아이의 가족이 되어간다.
97	함께 생각해보기	최고 빵집 아저씨는 치마를 입어요	길상호	'치마를 입은 남자'로 상징되는 소수자는 억압 받는 여성이거나 원손잡이, 성소수자, 외국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우리사회에서 약자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다름에 대한 포용력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말해준다.
98	함께 생각해보기	탁탁 툭툭 음매~ 젖소가 편지를 쓴대요	도린 크로닌	농장의 젖소들과 암탉들이 농장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동조 파업을 하고 협상과 성공을 이끈다. 농장 동물들의 시위라는 상상 이상의 흥미와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 및 협상과정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잘 맞춰 보여주고 있다.
99	함께 생각해보기	파랑새가 산다	신혜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활용해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아빠 없는 하늘이와 혼자 울던 수민이가, 누렁이와 길냥이가 쫓겨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자본이 아니라 파랑새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100	함께 생각해보기	플라스틱 섬	이명애	최근 뉴스에 의하면 죽은 동근머리 돌고래의 뱃속에 비닐봉지가 무려 80개, 8kg에 달한다. 아직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양은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많다. 플라스틱 섬 그림책이 조용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농쳐서는 안된다.